

잡아함 133. 생사유전경

날짜: 5월 19th, 2025

출처: <http://www.dhamma.kr/wp/?p=17762>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급고독원에 계시면서 비구들에게 말씀하시었다.

“무엇이 있고, 무엇이 일어나며, 무엇에 매여 집착하고, 어디서 <나>를 보기에, 중생으로 하여금 무명에 덮이어 자기 머리를 싸매고 먼 길을 휘달리어 생·사에 바퀴돌며, 생·사에 흘러 다니면서 돌아갈 본 고장을 알지 못하는가.”

모든 비구들은 부처님께 여쭙었다.

“세존께서는 법의 근본이시고 법의 눈이시며 법의 의지이십니다. 훌륭한 세존이시여, 원하옵나니 저희들을 가엾이 여기시어 그 이치를 널리 말씀하여 주소서. 저희들은 그 말씀을 들은 뒤에는 마땅히 받들어 행하겠나이다.”

“자세히 듣고 잘 생각하라. 너희들을 위해 설명하리라. 모든 비구들이여, 물질이 있기 때문에 물질의 일이 일어나고 물질에 매이어 집착하며 물질에서 <나>를 본다. 그래서 중생으로 하여금 무명에 덮이어 그 머리를 싸매고 먼 길을 휘달리면서 생·사에 바퀴돌고 생·사에 흘러 다니게 하나니, 느낌·생각·지어감·의식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같느니라.”

“모든 비구들이여, 물질은 항상된 것인가. 항상되지 않은 것인가.”

“항상되지 않나이다. 세존이시여.”

“만일 항상되지 않은 것이라면 그것은 괴로운 것인가.”

“그것은 괴로운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그와 같이 비구들이여, 만일 덧없는 것이라면 그것은 괴로운 것이다. 그 괴로움이 있으므로 이 일이 일어나고 거기에 매이어 집착하며, 거기서 <나>를 본다. 그래서 저 중생들로 하여금 무명에 덮이어 그 머리를 싸매고 먼

길을 휘달리면서 생·사에 바퀴돌며 생·사에 흘러 다니게 하나니, 느낌·생각·지어감·의식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같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비구들이여, 모든 <물질>로써, 과거거나 미래거나 현재거나 안이거나 밖이거나 굶거나 가늘거나 좋거나 더럽거나 멀거나 가깝거나 그 일체는 <나>가 아니요 <다른 나>도 아니며, 그 둘의 합한 것도 아니라고 하면, 이것을 바른 슬기라 하나니 느낌·생각·지어감·의식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같느니라. 이와 같이 보고 듣고 깨닫고 분별하며, 그것을 따라서 기억하고 따라서 깨달으며 따라서 관찰하는 일이 있더라도 그 일체는 <나>가 아니요 <다른 나>도 아니며, 그 둘의 합한 것도 아니다. 이것을 바른 슬기라 하느니라. 만일 어떤 소견이 있어 ‘<나>도 있고 이 세간도 있으며 이 세상은 언제나 있어서 변하거나 바뀌지 않는 법이 있다’고 말하더라도 그 일체는 <나>가 아니요 <다른 나>도 아니며, 그 둘의 합한 것도 아니라고 관찰하면 이것을 바른 슬기라 하느니라.

만일 다시 어떤 소견이 있어 ‘현재의 <나>도 아니요 현재의 <내 것>도 아니며, 미래의 <나>도 아니요 <내 것>도 아니다’고 하더라도 그 일체는 <나>가 아니요 <다른 나>도 아니며, 그 둘의 합한 것도 아니라고 관찰하면 이것을 바른 슬기라 하느니라.

만일 많이 아는 거룩한 제자들로써 이 여섯 가지 보는 곳에 대해서, 그것은 <나>가 아니요, <내 것>도 아니라고 관찰하면, 그는 부처님에 대해서 의심을 끊고 법과 승가에 대해서 의심을 끊을 것이니, 이것을 비구라 하느니라. 많이 아는 거룩한 제자들은 다시 몸과 입과 뜻의 업을 지어 세 가지 나쁜 길로 나아가기를 버려두지 않으면, 혹 방일하더라도 그들은 결정코 삼보리로 향하여 일곱 번 천상과 인간을 오간 뒤에는 괴로움을 완전히 벗어날 것이다.”

부처님께서 이 경을 말씀하시자 여러 비구들은 부처님 말씀을 듣고 기뻐하여 받들어 행하였다.